

농어촌公 거창함양지사, 물愛GREEN 환경캠페인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앞장서

윤은호 기자 | 승인 2025.10.27 13:34





[내외일보] 윤은효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장명석)는 농촌 지역의 깨끗한 환경 조성 and 친환경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에코캠페인 「물愛GREEN(물애그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지난 10월 24일,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일원의 신원저수지에서 '합동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NH농협 거창군지부(지부장 이희열) 및 수질환경보전회 위원들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저수지 상류와 주변 지역의 폐기물 수거 및 정화활동을 통해 수질 개선과 깨끗한 저수지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신원저수지는 거창함양지사의 대표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신원면 일대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명석 지사장은 “농어촌공사는 앞으로도 「물愛GREEN」 활동을 통해 농업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은효 기자